

구역예배 및 가정예배(2020 년 11 월 세 번째 주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 장 7-18 절-

* 마음문 열기(Welcome)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떠올려봅시다.

* 찬양하고 경배하기(Worship)

저 밭에 농부 나가(찬591)

* 말씀 나눔(Word)

1. 이번 주일 설교와 요한복음 10 장 7-18 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존재론적 차원의 말씀과 자신의 성품 혹은 태도를 드러내는 실존적 차원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양의 문(7 절)과 선한 목자(11 절, 14 절)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문과 목자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전달받습니까?

3. 예수님은 삯꾼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2020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진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고, 아울러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결단을 나눠봅시다.

* 좋은 소식 알리기(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합시다.

* 함께 기도하기(Work of Prayer)

1.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께 강건함을, 담임목사님께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소서.
3. 가정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4.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더욱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5. 민족의 평화통일, 외교와 국방 안정, 경제 회복을 허락하소서.
6.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옵소서.